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4, No. 131, pp.325-346  
<https://doi.org/10.29212/mh.2024..131.325>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 [자료소개] 더글러스 맥아더의 태극무공훈장

박종래 | 군사유물 수집가

### 1. 맥아더의 태극무공훈장 추적 과정

태극무공훈장은 대한민국 무공훈장의 최고 등급<sup>1)</sup> 훈장이며 무공훈장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전투에 참가하거나 접적 지역에서 적의 공격에 대응하는 등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으로 뚜렷한 무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는 훈장<sup>2)</sup>이다. 이런 무공훈장에 관한 규정을 다룬 최초의 법률은 1950년 10월 18일, 대통령령 제385호 '무공훈장령'인데 이후 4차례 개정이 있었다. 1963년 12월 14일, 법률 제1519호 '상훈법'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 훈·포장령이 통폐합되었는데 무공훈장령 또한 대상이 없었지만 관련 규정의 큰 틀은 현행 유지되고 있다.

1) 무공훈장의 등급은 각각 태극(1등급), 을지(2등급), 충무(3등급), 화랑(4등급), 인현(5등급)으로 구분.

2) 법률 제16765호 상훈법 제13조에 언급된 무공훈장의 수여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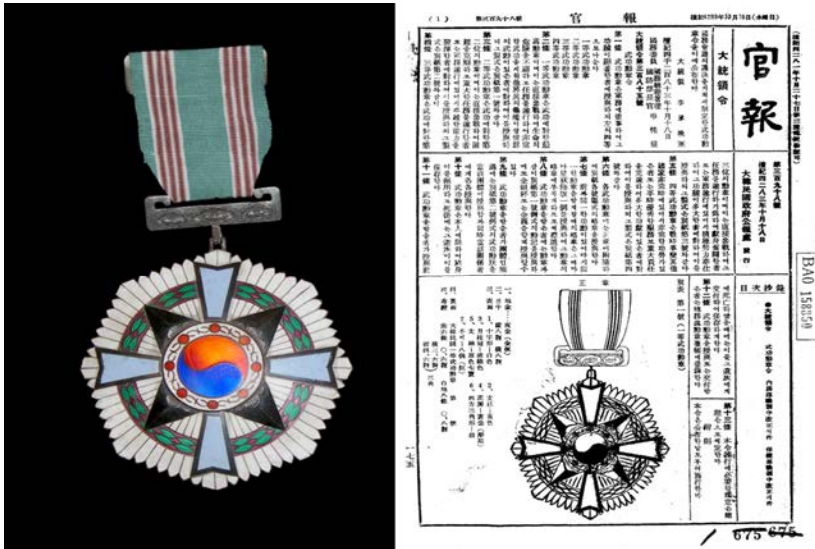


〈그림 1〉 브라이언 장군의 태극무공훈장(1951년 8월 제식)

\* 출처: 본인 개인 소장품

사실 서두에 언급한 태극무공훈장의 경우 처음 수집 취미를 하던 시점부터 관심 있던 건 아니었다. 다만 이후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생겼는데 바로 2017년 하반기 때의 일이다. 나는 6·25전쟁 당시에 미육군 제24사단장 브라이언(Blackshear M. Bryan, 1900~1977) 장군에게 수여된 태극무공훈장 실물을 운 좋게 입수했다. 이후 태극무공훈장에 관한 지엽적인 정보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중 대한민국 전체 무공훈장이자 태극무공훈장의 최초 수훈자인 미육군 원수 더글러스 맥아더(Douglas MacArthur, 1880~1964)의 훈장 실물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6·25전쟁기 무공훈장의 제식은 현재의 무공훈장 제식과는 확연히 다르다. 1950년 10월, 최초 법률 제정 이후 전쟁 기간 중 제식 변경에 관한 개정이 2차례 있었는데 각각 1951년 5월 24일 및 동년 8월 19일이다. 1951년 5월 개정 시 1950년 10월 제식에서 수(綬)의 색상만 변경되었고, 동년 8월에는 각 등급별 훈장의 정장(正章) 형태 및 명칭<sup>3)</sup>이 변경되었다.



〈그림 2〉 1950년 10월 제식의 일등무공훈장(현 태극무공훈장)<sup>4)</sup>

\* 출처: (좌) 개인 수집 자료<sup>5)</sup> 및 (우) 국가기록원 자료를 편집  
(우 : <http://archive.history.go.kr/> 관리번호 BA0158850 검색)

미육군 원수 더글러스 맥아더(이하 맥아더)의 경우 1950년 9월 29일에 태극무공훈장이 수여되었는데 당시에는 무공훈장령이 제정되기 전이라 실물이 존재할 수가 없었다. 이로 인해 관련 법령 제정 이후 가장 우선적으로 1950년 10월 제식이 제작되어 수여되어야 하는 인물이다.

현재 6·25전쟁기에 제작된 태극무공훈장의 잔존 실물은 1951년 5월 및 8월 제식만 남아있고 1950년 10월 제식은 발견된 사례가 없다. 그래서 어쩌면 맥아더의 태극무공훈장이 유일한 1950년

3) 등급별 훈장의 변경된 명칭 : 일등→태극, 이등→을지, 삼등→충무, 사등→화랑  
4) 〈그림 2〉의 좌측 사진은 1951년 5월 제식 실물 사진에 1950년 10월 제식의 수형 태처럼 채색한 재현 사진.  
5) Cyril Vugts, *De Orde voor Militaire Verdiensten en de Oorlogsmedaille van de Republiek Korea*, *Albelli fotoboeken*, 2018, p17

10월 제식의 잔존 실물일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매우 흥미로울 수밖에 없었다.



〈그림 3〉 1950년 9월 29일, 태극무공훈장 증서 수여 당시 모습

\* 출처 : (좌)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자료관, (우) 국가기록원

(좌 : <http://archive.history.go.kr/> 등록번호 IM0000111587 검색)

(우 : <https://www.archives.go.kr/next/viewMainNew.do> 관리번호 CET0047918 검색)

이에, 맥아더의 태극무공훈장 실물 사진을 찾아봤지만 성과는 없었다. 그러나 흥미로운 기사 하나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승만(李承晩) 대통령은 1950년 9월 29일 서울 환도식이 거행된 그 날, 중앙청에서 유엔군사령관 맥아더 원수(元帥)에게 대한민국 최초의 1등무공훈장인 태극무공훈장을 수여했다. 그때는 미처 훈장

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훈장증(勳章證)만 수여했다가 나중에 태극무공훈장을 제작하여 일본 도쿄의 맥아더 장군에게 보내줬다.<sup>6)</sup>

이후 나는 언급된 내용의 출처를 알고자 해당 기사가 게재된 언론사에 연락했지만 관련 답변을 받지 못했다. 다만 이와는 별개로 1980년대 언론사 기사<sup>7)</sup>들 중에 맥아더의 태극무공훈장을 다룬 기사는 찾을 수 있었다.

2018년 1월 초, 행정안전부에 훈장 전달에 관한 당시 공식 정부 기록과 증서 사본의 존재 유무에 대해 민원을 넣었다. 하지만 몇 주 후 상훈담당관으로부터 답변을 받았는데 민원에 관련된 정보는 없다고 답변 받았다.

결국 별다른 성과 없이 의문점<sup>8)</sup>으로 남았지만 만약 기사 내용이 사실이면 1950년 9월 29일 수도 환도식 때는 증서만 수여됐고 이후에 실물 훈장이 전달되었기 때문에 맥아더의 태극무공훈장 실재(實在)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훈장을 소장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기관에 연락을 취하기로 했다.

바로 미국 버지니아 주 노퍽시에 위치한 맥아더기념관(MacArthur Memorial)이었다. 나는 해당 기관의 아키비스트인 제임스 조벨(James Zobel)에게 맥아더의 훈장 실물과 증서 사진을 문의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담당자에게 관련 답변을 받았다.

6) “빨치산 토벌대장 차일혁의 삶과 꿈 동북아 비극 시대에 민중의 지팡이가 되다”, 『아주경제』(2017년 2월 6일), <https://www.ajunews.com/view/20170206162130912> (2024년 4월 2일)

7) 1982년 3월 18일 동아일보 기사, 중앙청 영육 56년 건립에서 「박물관 계획」까지 <중>

8) 이후 2022년경에 관련 내용의 출처가 궁금해져서 추가로 확인해 본 결과 1971년 5월 26일, 중앙일보 연재 기사 「민족의 증언」에서 유사한 내용을 찾을 수 있었다. 참고로 해당 기사의 경우 맥아더 훈장을 언급한 가장 오래된 기사이며 비록 1982년 및 2017년 기사에서 출처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해당 기사에서 인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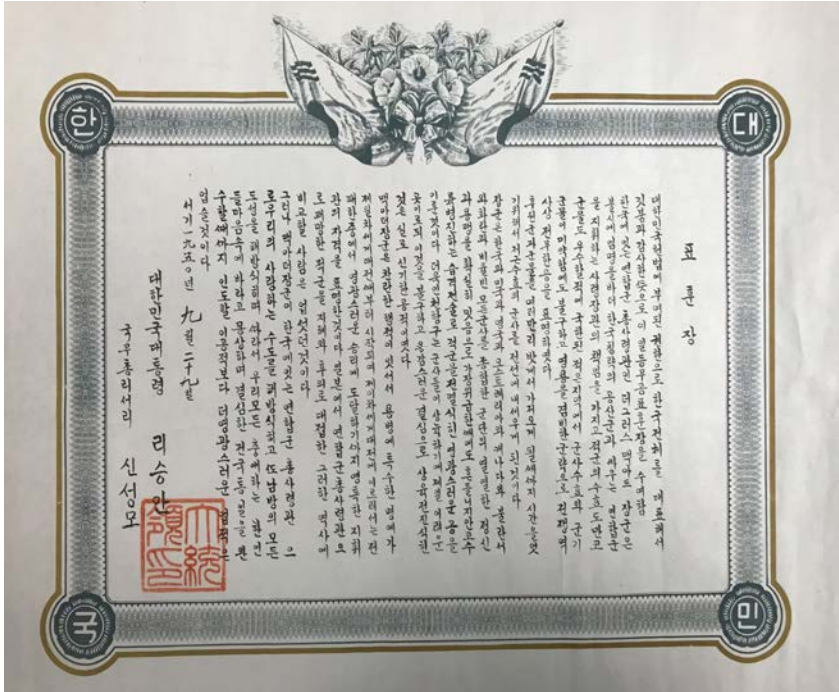
〈그림 4〉 2018년 1월 25일, 당시 담당자가 보내준 전시된 훈장 사진

\* 출처: 맥아더기념관 제공

그러나 담당자가 받은 훈장 사진은 태극무공훈장이 아닌 건국공로훈장이었다. 그래서 나는 이걸 1964년에 사후 수여한 건국공로훈장이라고 설명했고 1950년 당시에 수여된 태극무공훈장 실물과 증서 사진을 보내 달라고 회신했다. 하지만 이후에 담당자로부터 흥미로운 답변을 받게 되었는데 아래는 당시 담당자에게 받은 답변 내용이다.

“일등무공훈장(현 태극무공훈장) 증서 원본을 찾았고 내일 사진을 보내주겠다. 그런데 우리는 그(맥아더)가 실물 훈장을 못 받았다고 생각한다. 1950년 9월에 훈장 수여가 되었다고 하지만 1950년 및 1951년 육군성 서신에는 훈장을 받지 못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1980년 초, 우리 측 학예연구사가 기념관 소장품을 확인해 보니 일등무공훈장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고, 1984년에 우리 측 전임 박물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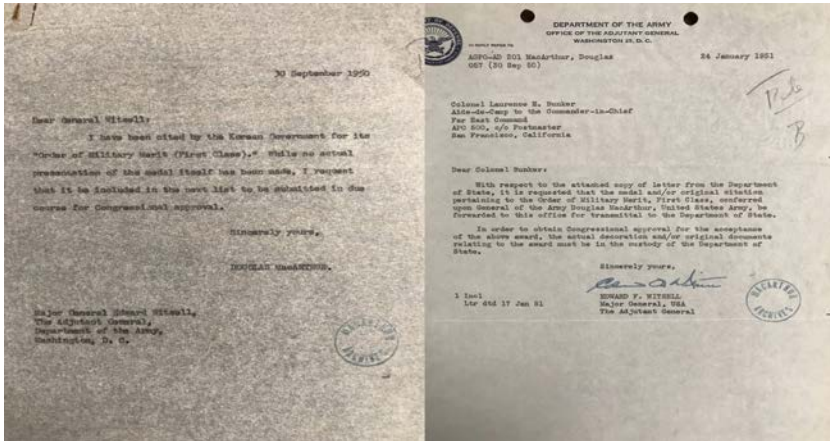
중 한 명이 한국 대사관에 이런 점을 문의해 봤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그림 5〉 일등무공훈장 증서(국문) 원본

\* 출처: 맥아더기념관 제공

그래서 나는 그에게 무공훈장령 제정 시점과 맥아더가 무공훈장을 수여받을 당시의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하는 답변으로 회신했고 얼마 안 지나서 요청한 증서의 사진을 받았다. 또한, 이후에 담당자가 얘기한 1950년 및 1951년 육군성 서신도 보내줄 수 있는지 추가로 문의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도 받을 수 있었다.



〈그림 6〉 1950년 9월 30일자 및 1951년 1월 24일자 서신 원본과 내용

\* 출처: 맥아더기념관 제공

〈그림 6〉의 좌측 서신 내용

친애하는 위첼 장군께:

한국 정부가 본인에게 '일등무공훈장'을 표창했던 바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훈장이 제작되지 않아 훈장을 받지 못하였기에 (외국훈장 패용을 위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니 본 사항을 다음 의제에 포함될 수 있게 요청해주시시오.

더글러스 맥아더

〈그림 6〉의 우측 서신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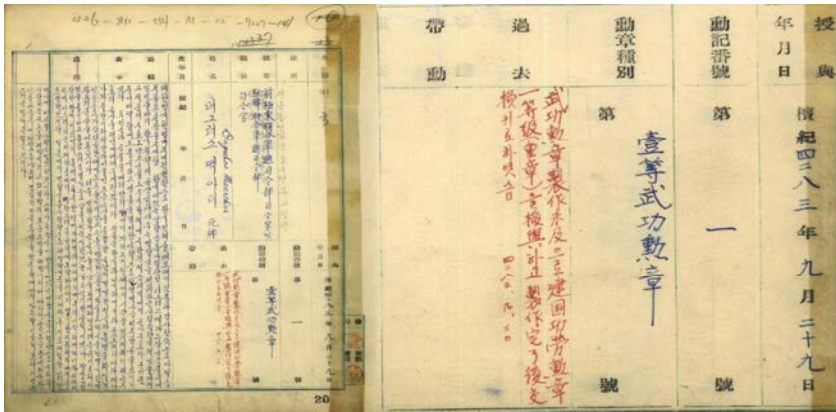
병커 대령에게:

첨부된 국무부 서신 사본과 본 부서로 발송된 더글러스 맥아더 원수에게 수여된 훈장 및/또는 일등무공훈장 표훈장 원본을 국무부로 보낼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일등무공훈장 패용을 위한 의회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훈장 및/또는 일등무공훈장 표훈장 원본은 국무부에 보관되어야 할 것입니다.

에드워드 F. 위첼 소장, 미국 부관감

담당자가 보내준 서신 내용을 확인해보니 태극무공훈장 실물은 없고 1950년 9월에 수여된 증서만 존재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 이와 관련된 과거 국내 기록은 없을까?

바로 국가기록원 소장 자료인 과거 태극무공훈장 수훈자 정보가 담긴 훈기부<sup>9)</sup>이며 정보공개 절차를 통해 맥아더의 훈기부 상세 내역을 받을 수 있었다.



〈그림 7〉 맥아더의 태극무공훈장 훈기부 내 상세 내역

\* 출처: 국가기록원  
(<https://www.archives.go.kr/next/viewMainNew.do> 관리번호 BA0839371 검색)

그렇게 수령 받은 훈기 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무공훈장이 제작되지 않아 건국공로훈장 1등급을 수여하고 추후에 훈장을 제작하면 교환하기로 함. 4283년(1950년) 9월 20일’이 언급된 특이 사항을 찾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나는 맥아더가 태극무공훈장 실물을 받지 못했다는 것으로 잠정적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9) 1950년부터 1980년 이내 태극무공훈장 수훈자 정보가 기록된 사료이며 공개 유형은 ‘부분 공개’다.

## 2. 과거 맥아더가 받은 대한민국 훈장의 수여 과정

### 1) 태극무공훈장(증서)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불법 남침으로 인해 6·25전쟁이 발발했다. 개전 초기 북한군 전력에 비해 국군 전력은 열악한 상태였고 이로 인해 전황은 악화되어 개전 후 약 3개월 만에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한 상태였다. 그러나 동년 9월 14일에 시행된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함에 따라 전황이 수세적 위치에서 공세적 위치로 전환했고 동월 28일에 수도 서울을 수복할 수 있었다. 이후 동년 9월 29일, 서울 중앙청에서 수도 환도식이 진행되었는데 이때 태극무공훈장 증서 수여가 진행되었다. 아래는 증언록에서 확인된 서울 환도식과 증서 수여 과정을 주요 내용만 편집한 글이다.

1950년 9월 28일 오전 10시, 경남도지사 양성봉(梁聖奉, 1900~1963) 관저에서 이승만 대통령 주재하에 임시국무회의가 진행되었으며 당시 국무회의가 진행 사유는 서울 탈환에 따른 내각의 수도 환도 일정을 논의하기 위함이었다.

이 대통령의 비밀 엄수 전제하에 동년 동월 29일 오전 8시, 이 대통령을 포함한 내각은 부산 수영비행장에서 항공편을 통해 오전 10시경 김포비행장에 도착했고 맥아더 원수와 함께 20여 대의 자동차에 탑승한 다음 서울 중앙청으로 향했다.

이후 오후 12시, 서울 환도식이 중앙청 내 국회의사당에서 진행

되었다. 행사 말미, 맥아더 원수의 태극무공훈장 증서 수여를 끝으로 수도 환도식이 종료되었다. 이후 동년 12월 23일, 체신부장관 장기영이 정식 훈장을 전달하러 도쿄로 향했다.<sup>10)</sup>

다만, 앞에서 다룬 증언 내용 중 ‘12월 23일 훈장 전달 건’의 경우 진위가 의심된다. 그 이유로는 맥아더의 내한 이력과 태극무공훈장 수여 사례 등을 들고자 한다.

먼저 맥아더의 내한 이력, 맥아더는 1951년 4월 11일 해임되기 전까지 몇 차례 내한했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소장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맥아더의 내한 사례는 아래와 같다.



〈그림 8〉 1951년 4월 3일, 양양에서 촬영된 맥아더의 사진

\* 출처: alamy

(<https://www.alamy.com/stock-photo/general-macarthur-1951.html?sortBy=relevant>)

10) 중앙일보사, 『민족의 증언 3권』, 1983, 122-126쪽

〈표 1〉 사료로 확인한 맥아더의 내한 사례

내한 일자	내한 내역	자료 등록번호
1950년 11월 24일	대규모 공세에 따른 회의 참석	IM0000130551
1950년 12월 11일	김포비행장 도착	IM0000114193
1951년 1월 <sup>11)</sup>	수원 유엔군본부 방문	IM0000124245
1951년 2월 20일	맥아더의 11번째 전방 시찰	IM0000130517
1951년 3월 7일	맥아더의 12번째 전방 시찰	IM0000111875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사료관 (<http://archive.history.go.kr/>), 기재된 등록번호로 사례 확인 가능

보다시피 상기 내역을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맥아더가 1950년 9월 29일 이후부터 1951년 4월 11일 해임되기 전까지 몇 차례 내한했기 때문에 굳이 훈장 실물 전달을 위해 대리인을 도쿄로 보낼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의문점이 든다.

또한, 무공훈장령 제정 이후 최고 등급의 무공훈장인 태극무공훈장 수여는 매우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면 대통령이 직접 수여한 사례가 거의 대부분이며 특히 이승만과 맥아더의 관계를 고려해 보면 대리인을 통해 최고 등급의 무공훈장을 전달했을 정도로 관계가 소원해지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

11) 해당 사료의 경우 촬영일자가 연도 및 월까지만 표기되어 있다.



〈그림 9〉 1951년 10월 31일, 태극무공훈장을 수여 받은 김홍일 장군 사진

\* 출처: 국가기록원

(<https://www.archives.go.kr/next/viewMainNew.do> 관리번호 CET0025564 검색)

하지만 이런 의문점만으로는 해당 증언의 진위 판단이 매우 어렵다고 보는데 가장 큰 이유는 현재 기준으로 증언을 한 인물과 증언에서 언급된 인물 간의 진위 검증이 불가능하다. 해당 증언을 한 인물은 제2대 외무부장관(1948~1951) 임병직이며 그가 언급한 훈장을 전달한 인물은 제2대 체신부장관(1949~1952) 장기영이다.

앞에서 다른 증언의 출처는 1983년에 중앙일보사에서 발간한 『민족의 증언 3권』이긴 하나 원류는 1971년 5월 26일, 중앙일보의 연재 기사<sup>12)</sup>이다. 현재 기준으로 두 인물 다 고인이라 검증

12) “(180)서울수복(5)환도”, 『중앙일보』(1971년 5월 26일),  
<https://www.joongang.co.kr/article/1292803> (2024년 4월 2일)

이 불가능하지만 1971년 당시에는 두 인물 모두 생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검증이 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1971년 당시, 증언에 대한 진위 검증 후 기사를 작성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혹시나 해당 증언을 한 인물들의 경우 당시 정부의 고위공직자였기 때문에 정보의 공신력이 있다고 판단해서 진위 검증을 안 했을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어찌면 정부에서 태극무공훈장 실물을 전달하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가 해당 정보가 대중이나 기관에 일반화되었기 때문 아닐까도 조심스럽게 추정해 본다.

마지막 이유는 이 증언의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 공식 정부 기록이 제1장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확인된 바가 없었기 때문에 앞에서 언급한 두 가지 이유로 인해 해당 증언이 거짓이라 단정하기는 조심스럽다.

하지만 만약 해당 증언이 진실이었다면 맥아더기념관에 태극무공훈장 실물이 존재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앞에서 열거된 당시 사례를 근거로 해당 증언을 한 인물의 기억 왜곡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하고 있다.

五、綠地地域  
別紙圖面表示外如左(圖西省略)  
地 域 別紙圖面表示外如左(圖西省略)  
面 積 八、四一三、〇〇〇平方米

計	八、四一三、〇〇〇
3	山直公園 同 一八五、〇〇〇
2	通伏公園 同 五七、〇〇〇

一、指定種目 勳章、記章、褒章  
二、指定日子 檀紀四二八五年十二月三十日  
右는政府勳章、記章、褒章製作所로指定함  
檀紀四二八六年一月二十四日  
大韓民國總務處長 韓 京 錫

○官廳事項  
總務處公告第一號  
大統命에依하여大韓勳章製作所를政府指定工場으로指定하였기茲에公告한다  
大韓勳章製作工場指定에關한件  
一、工場所在地 第一工場 서울特別市鍾路區鍾路一街五  
六 第二工場 釜山市麻州洞六〇六  
一、商 號 大韓勳章製作所  
二、代 表 者 蔣時根

商工部公告第十四號  
檀紀四二八六年三月八日子商工部公告第八十二號에依한第二特別外貨貸付에關하여全國生産企業體로서生産運營에要하는機材或原材料等을購入하기爲하여外貨貸付를必要로하는實需要者에對하여는即時貸付爲計이오니實需要者는이에따르는申請書를商工部長官에提出하시기를茲에公告한다  
檀紀四二八六年三月十日  
商工部長官 李 載 灑

(그림 10) 1953년 3월 11일, 제151호 정부 지정 훈장 제조업체 공고

\* 출처: 국가기록원

(<https://www.archives.go.kr/next/viewMainNew.do> 관리번호 BA0185620 검색)

그럼 해당 증언을 아예 배제하더라도 전쟁 기간 내내 맥아더에게 태극무공훈장 실물이 수여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그래도 의문이다. 그 이유는 1950년 9월 29일 당시에는 훈장 제작이 불가능했겠지만 이후 전황이 타개되어 훈장 제작 여건이 마련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 이전부터 훈장 및 포장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민간 업체가 서울 종로에 있었다. 그러나 이후 6·25전쟁으로 인해 설비를 챙겨 부산으로 피난<sup>13)</sup>했기 때문에 아무리 열악한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적어도 훈장 한 점을 제작

13) 이무경, “금빛으로 아로새긴 53년 ‘영육’ 장대근”, 『경향신문』(2001년 4월 15일), <https://www.khan.co.kr/culture/culture-general/article/200104151835501> (2024년 4월 2일)

하지 못할 상황은 아니었다.

또한, 앞서 언급한 것처럼 맥아더가 1951년 4월 해임되기 전까지 여러 차례 내한을 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충분히 훈장 수여가 가능했을 것이다. 하지만 영문은 모르겠으나 결국 맥아더 생전에 태극무공훈장 실물은 수여되지 않았다.

## 2) 건국공로훈장

맥아더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수여받은 마지막 훈장은 사후에 수여된 건국공로훈장이다. 수여받은 훈장의 등급은 중장이며 현재의 ‘건국훈장 대한민국장’과 동일 훈격이다. 참고로 맥아더 생전에 건국공로훈장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가 두 번 있었다.

첫 번째, 6·25전쟁 당시인 1950년 9월에 태극무공훈장의 교환용 훈장인 일등건국공로훈장(건국공로훈장 중장의 이전 명칭)을 수여하기로 결정했지만 이 건 훈기부 기록만 존재할 뿐 훈장의 실재는 확인된 바가 없다.

두 번째, 1957년 맥아더 동상 건립 제막식 참여 건이다. 1957년 4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인천상륙작전의 전공을 기념하기 위해 맥아더 장군 동상 건립이 결정된다.<sup>14)</sup> 이후 자유당 중앙위원회 의장 이기붕(1896~1960)은 방미 후 맥아더에게 동상 제막식 참석을 위한 내한을 요청했고 그는 참석할 의사를 밝혔다.<sup>1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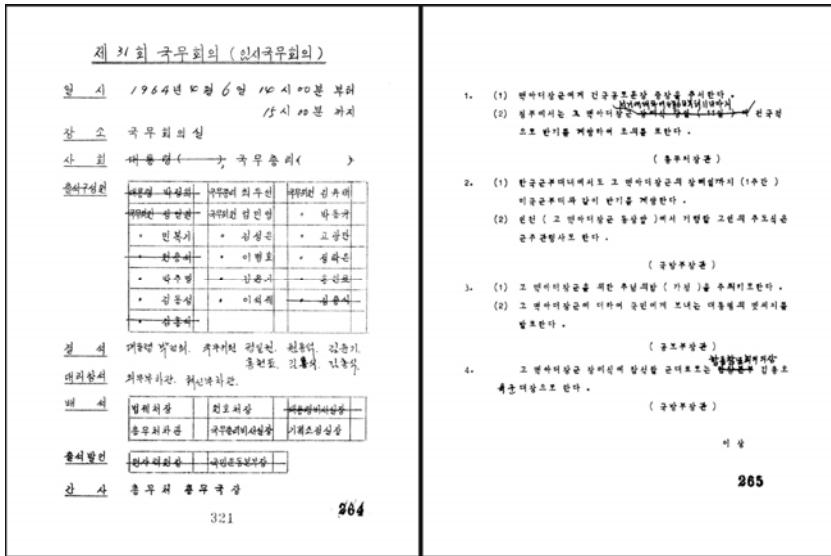
이에, 맥아더 내한에 맞춰 9월 9일에 일등건국공로훈장을 수여할 예정<sup>16)</sup>이었다. 그러나 동상 제막식에 참석한다고 의견을 밝힌 맥아더는 9월 1일, 일신상의 이유를 들어 참석이 어렵다고 통보<sup>17)</sup>했다.

14) 1957년 4월 24일 동아일보 기사, 맥장군동상건립 국무회의서 의결

15) 1957년 5월 30일 조선일보 기사, 맥장군 내한

16) 1957년 5월 31일 동아일보 기사, 일등건국공로훈장

17) 1957년 9월 2일 조선일보 기사, 형편에 의해 불참



〈그림 11〉 1964년 4월 6일, 제31회 국무회의(임시국무회의) 기록

\* 출처: 국가기록원

(<https://www.archives.go.kr/next/viewMainNew.do> 관리번호 BA0085249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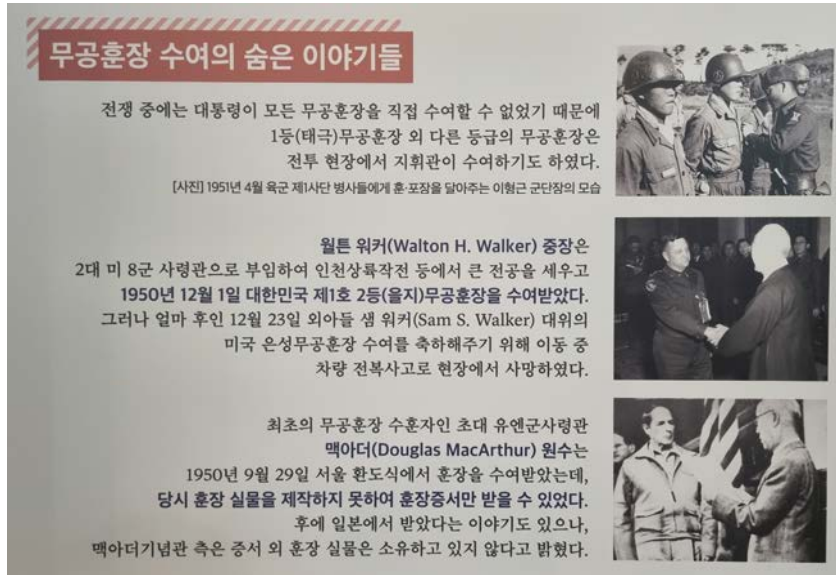
이런 이유로 인해 건국공로훈장 또한 생전 수여가 무산되었으며 이후 1964년 4월 5일, 맥아더는 향년 84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그럼 현재 맥아더기념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건국공로훈장은 언제 수여가 결정된 것일까?

바로 사망 다음날인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예우 방안 중 하나였다. 훈장 수여가 결정된 후 훈장 전달이 된 시점은 동년 9월 15일이며 미국 버지니아 주 노퍽시에서 거행된 추념식에서 당시 주미대사인 김정렬(1917~1992)이 노퍽시장 로이 B. 마틴(Roy B. Martin Jr, 1921~2002)에게 훈장이 전달<sup>18)</sup>되었다.

18) 1964년 9월 17일 경향신문 기사, 한국건국공로훈장 고「매」원수에 수여

### 3. 74년 만에 맥아더 장군의 태극무공훈장 전달

제1장에서 다뤘던 맥아더의 태극무공훈장 추적 과정은 2018년 1월부터 2월 초의 일이다. 당시에 나는 내 경험담을 주변의 일부 지인에게 알려주곤 했다.



〈그림 12〉 무공훈장 관련 전시물

\* 출처: 본인 촬영

이후 3년이 지난 2021년 초, 당시 박물관에 근무하는 지인에게 무공훈장에 관한 일부 정보를 제공해 주면서 맥아더의 태극무공훈장 실물 존재 유무 또한 알려줬는데 그 내용이 전시물에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예전 경험이 떠올라서 기록 목적으로 개인 SNS에 글을 작성<sup>19)</sup>하게 되었는데 나름 글 말미에는 ‘지금이라도 훈장 수여 약속을 지켜야 한다’라고 사견도 남겼다.

그러나 당시에 글만 작성했을 뿐, 정부 기관에 시정 조치를 위한 민원을 제기할 정도로 적극적인 편은 아니었고 혹시나 반론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신중하게 행동하고자 했었다. 하지만 이후에 별다른 행동을 안 했고 점점 관심이 떨어지게 되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또 지났고 2023년 5월경, 정말 우연히 내 글을 접한 일면식 없는 분이 글 작성 이후에 확인된 정보가 있는지 문의해왔다. 그리고 만약에 추가로 확인된 정보가 없다면 내 글을 근거로 정부 기관에 민원 제기를 하겠다고 의견을 줬는데 이에 대해 나는 별다른 이견 없이 동의했다.

약 한 달 후, 국방부에서 태극무공훈장 실물 미수여 문제에 공감하여 실물 수여 추진을 진행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이후 동년 8월경 실물 수여 결정이 최종 확정되어 현재는 훈장 전달 방식에 관해 논의 중인 상태라고 전달받았다.

이에, 민원을 제기한 분과 나는 9월경에 국방부로부터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장을 받았다. 다만 감사장을 받은 이후 연말이 된 시점까지도 태극무공훈장 실물 전달 소식을 듣지 못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국방부 관계자에게 몇 번 연락을 해서 문의해 봤지만 아직 수여 시점이 논의되지 않았다고만 전달받았다.

19)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laison/222359427932>)



〈그림 13〉 2024년 1월 26일, 맥아더 태극무공훈장 실물 전달 행사에 관한 뉴스

\* 출처: KBS News (YouTube 채널)

이후 또 한 해가 지나 2024년 1월 26일 오전경이었다. 업무 중 국방부 관계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미국 현지 시간으로 1월 26일에 미국 버지니아 주 노퍽시에 위치한 맥아더기념관에서 태극무공훈장 전달 행사가 예정되었다고 전달받았다.

예정대로 미국 현지 시간으로 1월 26일, 태극무공훈장 실물 전달 행사가 진행되었다. 이후 국방부 보도자료가 배포<sup>20)</sup>되었고 관련 국내 언론 보도가 일괄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2월 초순, 2018년 1월에 맥아더의 태극무공훈장 실물 존재 유무를 알려준 맥아더기념관 담당자에게 다시 연락했다.

2018년 당시에 나는 담당자에게 관련 정보를 보내준 것에 감사를 표했고 이 사실을 정부 기관에 알려 태극무공훈장 실물이

20) 74년 만에 맥아더 장군의 태극무공훈장(실물) 전달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12726>)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했었다. 그래서 매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약속을 지킨 것 같아 기쁘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 훈장 실물 전달 이후 변경된 현재 전시실 모습이 궁금했기에 연락하게 된 것이다.



〈그림 14〉 현재 맥아더기념관 내 전시실 사진

\* 출처: 맥아더기념관 제공

며칠 후 담당자에게 전시실 사진을 받았는데 2018년 당시에 받은 사진과는 다른 점이 있었다. 바로 전시실에 태극무공훈장 실물이 추가된 것이다.

올해는 1950년 9월, 맥아더에게 태극무공훈장 수여가 결정된 지 약 74년이 지났고 나에게는 2018년 1월, 이 사실을 알게 된 지 약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시점이었다. 처음에는 1950년형

태극무공훈장을 보고 싶은 마음으로 정보를 찾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과정의 시작은 매우 지엽적이었지만 끝은 의도치 않게 또 하나의 역사로 이어졌다고 생각하니 여운이 남는다.

또한, 비록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작든 크든 간에 잊힌 역사를 상기시켜주는 일은 그 누구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바로 이번 경험이 그러한 예시라 생각되며 개인적으로는 ‘어느 또 다른 누군가’가 주목받지 않은 역사를 발굴하여 주변에 상기시켜주는 일이 또다시 있기를 기대해 본다.